

## 업종별 창업 및 폐업의 지리적 특성 분석

이금숙\* · 박소현\*\*

###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Business Start-up and Closing Business according to the Type of Industry

Keumsook Lee\* · Sohyun Park\*\*

**요약** : 본 연구에서는 창업과 폐업을 지리적 맥락에서 검토한다. 특히 업종에 따라 창업과 폐업의 지리적 특성을 밝히고 이들에 작용하는 지리적 요소 및 그 영향을 파악한다. 이를 위하여 창업에 대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는 지역단위인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의 단초가 마련된 금융위기 이후 10년의 자료를 활용한다. 먼저 창업과 폐업의 지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 및 법인의 공간적 분포 양상을 검토하고, 이들의 지리적 분포를 설명하는 일반선형회귀모형과 공간회귀모형을 구축한다. 분석결과, 창업 입지분포를 결정하는 요인과 폐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개인과 법인 간, 개인의 창업과 폐업 간에 다소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창업을 독려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하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지역계획에 기초적 자료가 될 것이다.

**주요어** : 창업, 폐업, 지리적 특성, 개인사업체, 생활밀접업종, 일반선형회귀모형, 공간회귀모형,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Abstract** : In this study, we examine business start-up and closing business in a geographical context. In particular, we analyze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business start-up and closing business according to the type of industry. For the purpose, we use the last 10 years data that have been related with current economic situation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first, we identify the spatial distribution patterns of business start-up and closing business, We examine the difference between individual businesses and corporations. Finally, we construct general linear regression models and spatial regression models for them, and derive meaningful socioeconomic variables that explain their location distribu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provide basic data for regional planning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that activate local economies as well as job creation.

**Key Words** : business start-up, closing business,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individual business, life friendly industry, general linear regression model, spatial regression model, job creation, local economies

---

이 논문은 2018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 kslee@sungshin.ac.kr)

\*\*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박사후연구원(Postdoctoral Researcher, Environmental Planning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sohyunpk5@hanmail.net)

<http://dx.doi.org/10.23841/egsk.2019.22.2.178>

## 1. 서론

세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컴퓨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산화 및 자동화의 확대로 기존 산업현장에서의 일자리 축소 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Frey and Osborne, 2017). 이에 따라 실업인구의 증가와 취업난 문제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 그 여파의 하나로 자영업자의 창업이 크게 늘고 있다.

우리나라 실업률은 아직까지 OECD 평균 6.7% (2017)보다는 낮은 상황이지만 앞서 1990년대 중반까지 고도 성장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감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다가온다.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청년층의 취업난<sup>1)</sup>과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고령인구 및 노인 빈곤문제 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물론 지자체들도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창업지원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 창업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창업한 업체 중에는 얼마 지탱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도 많아 사업체의 신생율과 소멸률은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1인가구의 증가 및 비혼·웰니스(웰빙과 피트니스의 합성어) 트렌드 확산 등 사회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관련 업종들의 창업과 폐업이 크게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역의 경제경관도 빠르게 변모해 가고 있다(박소현·이금숙, 2016; 2017; 2018).

2018년 12월 발표된 “기업생멸행정” 통계자료에 따르면, 창업한 업체의 신생률은 개인이 15.6%, 법인이 10.9%를 차지하고, 소멸률은 개인이 11.3%, 법인이 6.8%로 나타나고 있다. 신생기업 중 개인기업이 92.6%를 차지하고 있다. 창업 후 가동 중에 있는 활동기업 중 89.7%(2017)도 개인기업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멸기업 중 개인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은 93.6%로 나타나고 있어서 자영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개인기업들의 창업 및 폐업이 좀 더 빈번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영업체의 폐업률이 높아 자영업 폐업자 수가 2015년(79만 50명)에서 2017년에는 90만 8,076명까지 증가했으며 개업 대비 폐업 수를 나타내는 자영업 폐업률이 2016년 77.8%에서 2018년 90%에 육박할 것으로 보았다(소상공인연합회, 2018). 이러한 개인기업들의 빈번한 창업과 폐업은 개인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경제·사회적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개인기업 및 자영업의 생멸에 작용하는 요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남윤미, 2017).

일자리는 지역을 기반으로 창출되는데 지역에 따라 인구의 연령 및 학력 등 인구구성이 다르고 사업체 및 토지이용상태 등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자리의 총량이 일정하다고 가정할지라도 그 총량의 지리적 분포는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 실업률은 서울이 5.6%인데 반해 세종(2.2%)과 제주(2.1%)는 절반 이하로 지역 간에도 2배 이상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대통령직속 일자리 위원회, 2019). 앞서 박소현 외(2018)는 우리나라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령층과 성별에 따라 각기 선호하는 업종에 차이가 있어 연령층별 일자리의 지리적 분포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창업의 경우도 업종에 따라 확보되는 일자리의 내용이 다르므로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업종선정 및 창업성향의 발달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최중석·성상현, 2015). 미국을 대상으로 생계형 창업의 증감에 실업률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Deli(2011)의 연구에 따르면, 고숙련 노동자들은 실업률 변동에 크게 영향 받지 않는 반면 저숙련 노동자들의 경우 경기가 침체되면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생계형 창업을 선택하게 되는데 주로 저부가가치의 단순업종

(도·소매업, 숙박업 등)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국내에서도 (재)취업의 대안으로 창업이 시도되고 있으며, 특히 신규창업이 활발한 청년층의 경우 소매업과 음식·숙박, 서비스, 도매 등 생활서비스와 생활소비와 관련되는 업태에서 창업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통계, 2018). 창업의 업종, 기업의 생멸, 창업주의 연령 및 소득규모 등은 입지하는 지역환경의 특성에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이금숙, 1998), 업종에 따라 창업하여 성공할 수 있는 사업환경과 입지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업종별로 창업과 폐업의 지리적 분포에서도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창업에 대한 연구는 일자리의 창출과 소멸에서 창업의 중요성과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효과 및 이를 통한 지역 발전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Fritsch, 1997; Baptista and Preto, 2011; Fritsch and Mueller, 2004; Mueller et al., 2008; van Stel and Storey, 2004; van Stel and Soddle, 2008; Kane, 2010). 국내연구의 경우 주로 경제 및 인구사회적 측면에서 창업을 다루어 왔으며 특히 자영업에 초점을 두고 경기변동과 자영업 선택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영업 비중과 실업률 및 주요변수와의 장·단기 관계를 추정한 연구(김우영·박동규, 2012), 자영업의 업종별 진출입 패턴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안주엽·성지미, 2003; 전현배 외, 2016), 창업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창업업종 선정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최중석·성상현, 2015)등 있다. 최근 들어 창업활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정현·이희연, 2017; 정혜진, 2016; 이운숙·문성욱, 2016; 안은경·이희연, 2015; 김원규·김진웅, 2014)와 자영업의 폐업을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류근관 외, 2015; 남운미, 2017) 등 지역을 고려한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창업과 폐업의 문제를 그들의 업종에 따른 입지적 측면에서 검토하는 지리학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

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창업 업체들의 입지 분포에서 나타나는 지리적 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업과 폐업의 지리적 특성을 밝히고 이들에 작용하는 지리적 요소 및 그 영향을 파악한다. 이를 위하여 창업에 대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는 지역단위인 전국 22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의 단초가 마련된 금융위기 이후 10년의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과 법인 형태의 신규창업과 폐업의 규모 현황과 증감 추이를 살펴보고, 지리적 분포에서 나타나는 특징도 비교 검토한다. 이 중 실제 창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서비스와 생활소비와 연관되는 생활밀접업종을 대상으로 창업과 폐업이 두드러지는 업종을 추출하여 지리적 증감의 변화 양상도 살펴본다. 또한 개인과 법인의 신규창업 입지를 결정하는 요인과 폐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선형회귀모델과 공간회귀모델을 구축한 후 추정결과를 비교하여 유의미한 사회경제적 변수를 도출한다.

## 2. 데이터 및 현황

본 연구에서는 국세청에서 전국 시·군·구 단위로 제공하는 사업자현황자료와 100대 생활밀접업종의 사업자현황 및 전년대비 변화율 자료를 활용한다<sup>2)</sup>. 국세청의 매월 사업자현황에 대한 자료는 시·군·구 지역단위로 업태별(대분류체계: 농·임·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음식업, 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부동산임대업, 대리·중개·도급업, 서비스업(기타포함) 등으로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의 신생·소멸과 고용창출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

행정자료를 이용하였다<sup>3)</sup>. 국세청에서 집계하는 사업자 자료는 국내 영리기업 중 당해 연도 매출액이 있거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등재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상용근로자가 있는 활동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2017년부터 제공되고 있는 100대 생활밀접업종 자료는 그 업태에 따라 크게 서비스(50개), 소매(36개), 숙박(2개), 음식(12개)으로 구분되며, 서비스의 경우 병·의원(13개), 전문직(9개), 교육(5개), 기타(23개)의 업종으로 다시 세분화된다(표 1). 생활밀접업종의 경우 월별자료가 제공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2017~2018년 각 연도별 12월 기준 자료를 대상으로 창업과 폐업의 증감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한편, 국세청 자료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신규사업과 폐업에 따른 사업자 등록에 기초한 집계 자료이므로 일부 등록의 형태가 변경된(예를 들어 개인에서 법인의 형태로 사업자 등록이 변경되는 등) 사업체를 창업의 범위로 두기 모호한 경우가 있어 '신규사업'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

규사업'과 함께 일반 대중에게 친숙한 개념이자 용어인 '창업'을 혼용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왔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특히 개인 차원의 창업과 폐업이 크게 늘고 있다. 다음 그림 1은 지난 10년 동안 전국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창업과 폐업의 규모 증감 및 연도별 증감을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신규창업 등록에서 법인사업자는 2007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다 2017년 소폭 감소하며 124,787명이 신규 진입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연도별 증감이 반복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며 2017년 신규 창업자는 1,159,802명으로 집계되었다. 창업활동의 신규 진입에 있어 개인이 법인보다 9배 이상 높음을 알 수 있다. 창업 수가 증가한 만큼 폐업 수도 증가세를 나타냈는데 연도별 증감을 상승 폭을 보면 법인이 개인보다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창업 1명당 폐

표 1. 100대 생활밀접업종 분류 항목

업태		세부 업종
서비스 (50)	병의원(13)	기타 일반의원, 내과·소아과 의원, 동물병원, 산부인과 의원, 성형외과 의원, 신경정신과 의원, 안과 의원, 이비인후과 의원, 일반외과 의원, 종합병원, 치과병원·의원, 피부·비뇨기과 의원, 한방병원·한의원
	전문직(9)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교육(5)	교습학원, 교습소·공부방,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스포츠 교육기관, 예술학원
	기타(23)	가전제품수리점, 간판광고물업, 결혼상담소, 노래방, 당구장, 독서실, 목욕탕, 미용실, 부동산중개업, 사진촬영업, 세탁소, 스포츠시설운영업, 실내스크린골프점, 실내장식가게, 실외골프연습장, 여행사, 예식장, 이발소, 자동차수리점, 주차장운영업, 피부관리업, 헬스클럽, pc방
소매(36)		가구점, 가전제품판매점, 건강보조식품가게, 건어물가게, 곡물가게, 과일가게, 꽃가게, 담배가게, 문구점, 생선가게, 서점, 슈퍼마켓, 스포츠용품점, 시계·귀금속점, 식료품가게, 신발가게, 안경점, 애완용품점, 약국, 옷가게, 의료용품가게, 이륜자동차판매점, 자전거판매점, 장난감가게, 정육점, 주유소, 중고차판매점, 채소가게, 철물점, 침구·커튼가게, 컴퓨터판매점, 통신판매업, 편의점, 화장품가게, 휴대폰가게, LPG 충전소
	숙박(2)	여관·모텔, 펜션·게스트하우스
음식(12)		간이주점, 구내식당, 기타외국식전문점, 기타음식점, 분식점, 일식전문점, 제과점, 중식전문점, 커피음료점, 패스트푸드점, 한식전문점, 호프전문점

자료: 국세청 사업자 현황

업 등록자 수는 개인이 법인보다 상대적으로 많음을 엿볼 수 있는데 2017년 기준 법인사업자 신규창업 1명 대비 폐업자수는 약 0.6명, 개인은 약 0.7명으로 산출되었다. 2017년 기준 법인 7,362명, 개인 837,714명이 폐업을 등록한 것으로 집계되어 마찬가지로 폐업 등록도 개인이 법인보다 12배가량 많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신규창업에서 증가세를 나타냈고, 폐업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창업과 폐

업 등록은 개인이 법인보다 둘 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규창업으로 등록하는 업태의 변화 추이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살펴보았다. 통계청 집계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3년 생존율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지만 자영업이 주로 몰려있는 업종 중 숙박 및 음식점이나 도소매업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생존율이 나타나는 반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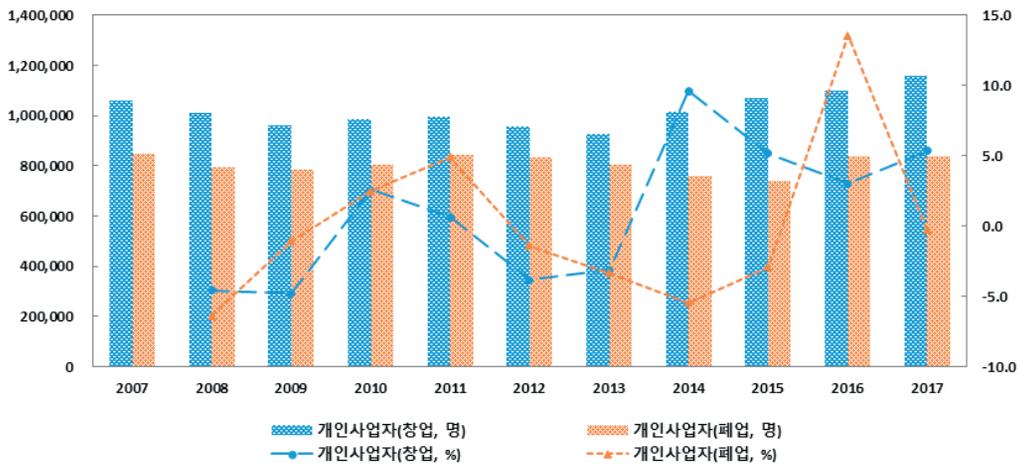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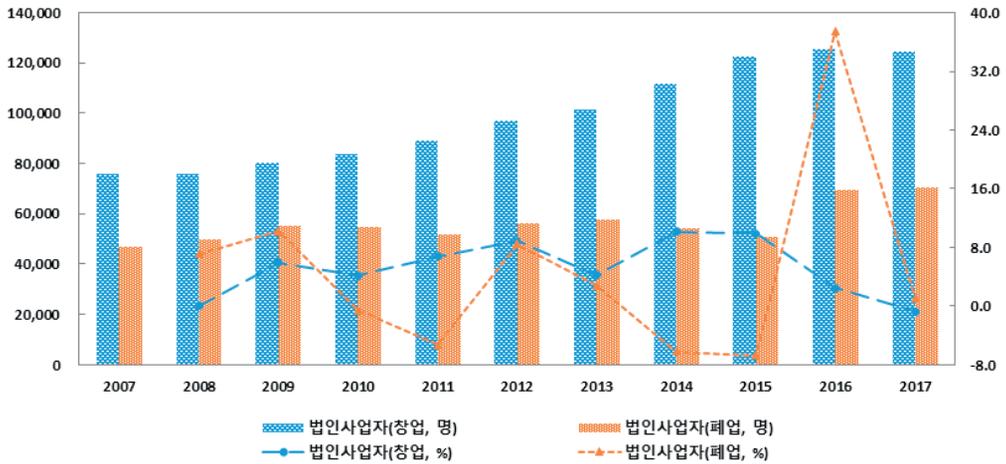


그림 1. 전국 사업형태별 창업, 폐업 현황 및 증감률 추이

주: 전년대비 증감률을 나타낸 것임.

자료: 국세청 사업자 현황

표 2. 전국 업태별 창업 분포 현황 및 추이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농·임·어업	0.8	0.7	0.8	0.9	0.9
광업	0.0	0.0	0.0	0.0	0.0
제조업	6.3	6.0	5.7	5.3	4.9
전기·가스·수도업	0.4	0.9	0.6	0.6	2.0
도매업	8.8	8.3	7.6	7.3	6.6
소매업	18.1	17.2	16.6	16.1	15.6
부동산매매업	0.5	0.6	0.7	0.7	0.7
건설업	5.6	5.5	5.9	6.0	5.7
음식업	17.2	16.8	15.7	15.3	14.1
숙박업	0.7	0.7	0.8	0.8	0.8
운수·창고·통신업	6.7	6.1	5.7	5.2	4.7
부동산임대업	12.0	14.2	17.7	18.6	20.8
대리·중개·도급업	1.7	1.6	1.7	1.7	1.7
서비스업	21.2	21.3	20.6	21.7	21.6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국세청 신규사업자 현황

타난다(남윤미, 2017).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국세청의 창·폐업 자료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표 2는 신규창업의 업태별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지난 5년간 신규 창업은 서비스업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신규 업종 5개 중 1개가 서비스업(21.6%)인 것으로 집계되었고,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낸 부동산임대업이 20.8%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다. 2014년 서비스업 다음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던 소매업은 이후 소폭의 감소세를 나타내며 2017년 15.6%의 구성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음식업의 경우 신규 사업자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14.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신규 창업은 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 소매업, 음식업 등의 순으로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나머지 업종은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하고 창업이 가장 두드러진 업종은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생활서비스 및 생활소비와 관련되는 업태임을 알 수 있다.

### 3. 업종별 창업과 폐업 분포에 나타나는 공간적 특징

전국 시도별 신규창업의 구성 분포 추이를 살펴 보면 그림 2와 같다. 지난 5년(2013~2017)간 신규 창업의 절반가량은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었다. 서울에서 20% 정도로 꾸준히 창업의 신규 진입이 유지되었고, 경기지역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며 2018년 신규 진입한 창업 등록자 중 27.4%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외 나머지 지역은 신규사업자가 10% 미만의 구성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은 시도별 연도별 전년 대비 신규 창업과 폐



그림 2. 전국 시도별 창업 분포 현황 및 추이(단위: %)

자료: 국세청 신규사업자 현황

업의 증감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2013~2017년 동안 신규 창업의 전체 규모(수)는 서울과 경기 지역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도별 창업의 증감 추세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서울, 경기지역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그 증가율 상승 폭은 세종, 전북, 전남, 인천, 충남 등 전국적으로 증가추세가 관측되었다. 세종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 등 정책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2014년 50.4%의 증가세가 관측되었고 그 이후로도 증가율 상승 폭은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신규창업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전북의 경우 2017년 21.2%의 큰 폭의 증가세가 관측되었고, 전남도 13%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 뒤로 인천이 9.3%의 증가세를 나타냈는데, 인천의 경우 지난 5년간 신규창업의 증가율 상승 폭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울산, 경남, 제주 지역은 그 증가율 상승 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폐업의 연도별 증감을 추세를 살펴보면, 창업의 증가율 폭이 높았던 지역이 폐업의 증가율 폭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의 경우 폐업 등록이 전년 대비 2017년 13.7% 증가하였다. 2015년 대비 2016년은 전 지역에 걸쳐 폐업 등록이 매우 높았던 해로 나타났다. 창업이 활발한 지역에서 폐

업도 활발함을 엿볼 수 있지만, 당해연도 신규창업 대비 폐업 수로 살펴보면 세종의 경우 폐업 등록보다 신규창업 등록이 많아 2017년 기준 신규사업자 1명 대비 폐업등록자 수는 0.4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광주, 대구, 울산, 경남 지역은 신규창업 1명 당 0.8명이 폐업을 등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국 시·군·구 단위별 2017년 기준 신규창업과 폐업 등록을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여 지리적 분포양상을 살펴보았다(그림 3). 전반적으로 법인과 개인 모두 신규창업과 폐업의 지리적 분포 패턴은 유사한 양상을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규창업이 활발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폐업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규창업 중 법인의 형태는 서울 강남구(8,401명)가 가장 높은 분포도를 나타냈고, 그 뒤로 영등포구(4,014명), 서초구(3,466명), 경기 화성시(3,036명) 등의 순으로 높은 분포도를 나타냈다. 법인 폐업도 창업과 함께 서울 강남구(4,747명)의 분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로 영등포구, 서초구, 경기 성남시 및 고양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법인 창업과 폐업이 집중된 상위 10곳은 모두 서울, 경기 지역으로 산출되었고, 특히 강남구는 상위지역 중에서도

표 3. 전국 시도별 창업, 폐업 분포 증감률 추이

(단위: %)

	창업(a)				폐업(b)				=a/b	
	2014	2015	2016	2017	2014	2015	2016	2017	2017	
서울	11.4	3.1	-1.1	2.8	서울	-6.6	-3.3	16.4	-1.9	0.8
인천	6.6	7.5	8.9	9.3	인천	-7.9	0.5	15.6	-1.5	0.7
경기	9.9	10.2	7.2	6.7	경기	-5.1	-1.3	14.1	1.7	0.7
강원	7.7	6.1	9.3	2.2	강원	-7.1	-3.2	17.2	-1.3	0.7
대전	8.2	-2.4	0.2	1.7	대전	-5.7	-7.3	11.6	-1.9	0.8
충북	10.7	2.1	2.0	0.1	충북	-6.9	-8.5	21.0	-2.9	0.7
충남	8.4	6.9	1.2	7.3	충남	-7.6	-1.8	15.3	2.4	0.7
세종	50.4	31.2	3.5	8.5	세종	57.5	-10.6	29.6	13.7	0.4
광주	4.4	0.7	-2.0	4.0	광주	-4.6	-6.7	13.1	0.8	0.8
전북	9.8	-0.8	-0.7	21.2	전북	-1.3	-3.0	12.1	0.6	0.6
전남	13.7	-0.1	2.9	13.0	전남	-4.8	-1.6	15.9	1.2	0.7
대구	7.8	3.4	-0.7	-0.2	대구	-4.0	-6.7	12.4	-1.9	0.8
경북	8.0	4.6	1.7	2.9	경북	-5.7	-4.3	18.5	-2.5	0.7
부산	5.7	4.1	0.6	2.7	부산	-5.9	-4.4	10.4	-0.6	0.7
울산	10.9	6.0	3.9	0.0	울산	-2.5	-2.0	16.8	1.0	0.8
경남	7.2	7.6	2.2	-1.9	경남	-6.1	-4.0	15.0	1.0	0.8
제주	28.1	13.0	8.8	0.6	제주	-0.5	0.5	23.9	5.4	0.6

주: 전년대비 증감률을 나타낸 것임.

자료: 국세청 사업자 현황

압도적으로 높은 등록 수를 차지하여 법인 형태의 창업과 함께 폐업도 활발함을 알 수 있다. 개인 창·폐업의 지리적 패턴 역시 서울대도시권 및 지방대 도시를 중심으로 분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창업과 폐업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생활서비스와 생활소비와 관련되는 생활밀접업종의 지리적 분포도도 살펴보았다. 100개의 생활밀접업종은 크게 서비스(50개), 소매(36개), 숙박(2개), 음식(12개)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이들 업태별 전국 시군구별 2017년 12월 대비 2018년 12월 증감 수치를 토대로 지난 1년간 신규창업이 우세했던 세부 업종과 폐업이 창업보다 두드러졌던 세부 업종을 산출하였고, 이는 다음 표 4와 같다. 먼저 생활 밀접 서비스업 중 13개의 병·의원과 전문직(9개), 교육서비스(5개) 업종은 모두 신규등록업체 수

가 폐업 등록 수 보다 같거나 더 많아 증가형의 패턴을 띄었다. 산부인과를 제외한 모든 병·의원이 증가세를 나타냈는데 치과병원·의원이 전년월 대비 +277개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그 뒤로 한방병원·한의원(+181개), 내과·소아과(+159개) 등의 순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전문서비스업은 건축사(+566개)가 전년월 대비 가장 많은 신규업체가 등록하였고, 그 뒤로 세무사(+359개), 변호사(+347개) 등의 순으로 창업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서비스업 중 교습소·공부방의 창업 등록 수는 전년월 대비 2,280개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1,471개), 예술학원(+1,087개) 등의 순으로 신규 창업이 두드러졌다. 그 밖에 기타 생활 밀접 서비스업종 중 부동산중개업은 전년월 대비 무려 5,075개가 신규업체로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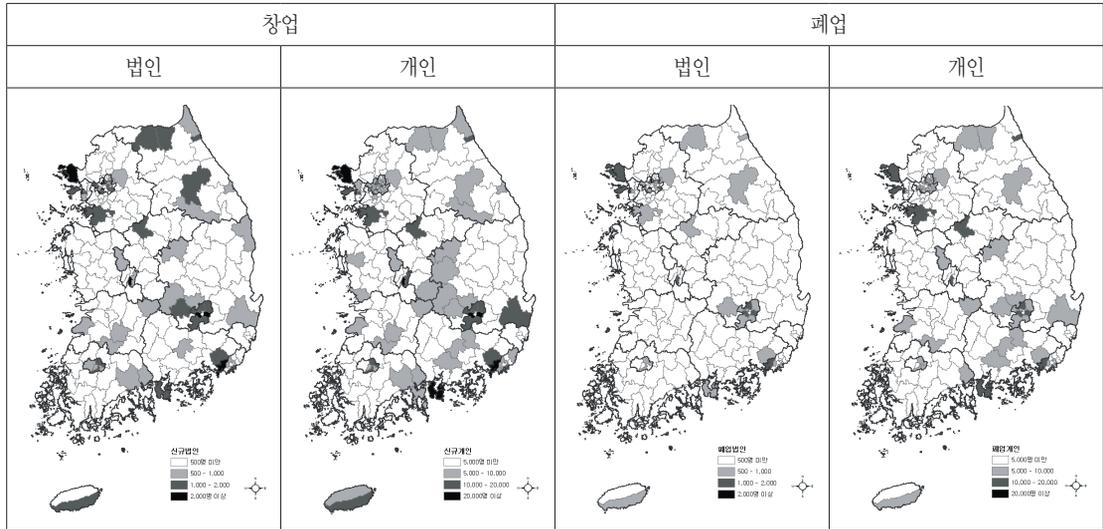


그림 3. 창업 및 폐업의 시·군·구별 분포(2017)

표 4. 2017-2018년 생활 밀접 업종별 증감(신규창업, 폐업) 목록

		증가형(창업≥폐업)	감소형(창업<폐업)
서비스 (50)	병의원 (13)	기타 일반의원, 내과·소아과 의원, 동물병원, 산부인과 의원, 성형외과 의원, 신경정신과 의원, 안과 의원, 이비인후과 의원, 일반외과 의원, 종합병원, 치과병원·의원, 피부·비뇨기과 의원, 한방병원·한의원	-
	전문직 (9)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
	교육 (5)	교습학원, 교습소·공부방,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스포츠 교육기관, 예술학원	-
	기타 (23)	가전제품수리점, 간판광고물업, 당구장, 미용실, 부동산중개업, 사진촬영업, 세탁소, 스포츠시설운영업, 실내스크린골프점, 여행사, 자동차수리점, 주차장운영업, 헬스클럽	PC방, 결혼상담소, 노래방, 독서실, 목욕탕, 실외골프연습장, 음식점, 이발소
소매(36)	가구점, 건강보조식품가게, 건어물가게, 과일가게, 꽃가게, 문구점, 생선가게, 슈퍼마켓, 시계귀금속점, 안경점, 애완용품점, 약국, 의료용품가게, 장난감가게, 중고차판매점, 채소가게, 통신판매업, 편의점, LPG충전소	가전제품판매점, 곡물가게, 담배가게, 서점, 스포츠용품점, 식료품가게, 신발가게, 옷가게, 이륜자동차판매점, 자전거판매점, 정육점, 주유소, 철물점, 침구·커튼가게, 컴퓨터판매점, 화장품가게, 휴대폰가게	
숙박(2)	펜션·게스트하우스	여관·모텔	
음식(12)	기타외국식전문점, 기타음식점, 일식전문점, 제과점, 중식전문점, 커피음료점, 패스트푸드점, 한식전문점	간이주점, 구내식당, 분식점, 호프전문점	

주: 2018년 12월 대비 2017년 12월 집계된 사업자 수의 증감을 나타냄.

자료: 국세청 사업자 현황

하였다. 그 다음으로 4,850개의 실내장식가게가 신규 업체로 등록되었고, 피부관리업(+4,146개), 미용실(+3,053개)도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대로 폐업 등록이 높았던 업체는 노래방(-919개), 이발소(-278개), 실외골프연습장(-203개) 등을 들 수 있다. 36개의 소매업종 중 신규등록업체 수가 폐업 등록 수보다 높았던 업종은 총 19개로 이 중 통신판매업은 전년월 대비 무려 25,743개의 업체가 신규로 등록하여 100개 생활 밀접 업종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 뒤로 편의점(+1,733개), 애완용품점(+752개)도 전년월 대비 눈에 띄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에 식료품가게(-3,040개)와 옷가게(-2,132개)는 전년월 대비 폐업 수가 더 많은 업종

으로 나타났다. 숙박업체 중 펜션·게스트하우스는 전년월 대비 1,840개가 신규 등록하였고, 여관·모텔(-491개)은 신규창업보다 폐업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산출되었다. 음식서비스업 중 신규 창업이 우세했던 업종 중 커피음료점이 전년월 대비 7,391개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고, 그 밖에 한식전문점(+3,458개), 기타외국식전문점(+1,903개) 등의 순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면에 구내식당(-2,136개)과 호프전문점(-1,955개), 분식점(-1,196개) 등은 폐업 수가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들 100개 생활밀접업종 중 서비스, 소매, 숙박, 음식 업태별로 창업과 폐업이 가장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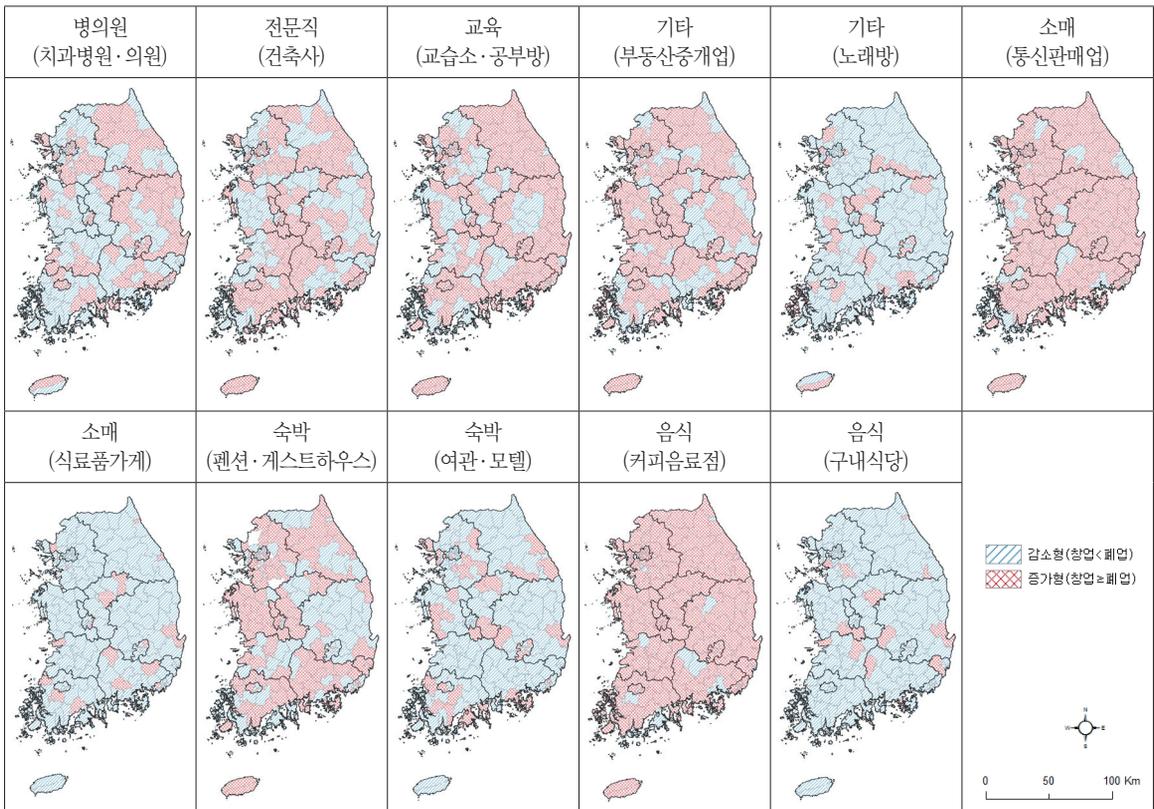


그림 4. 창업 및 폐업 상위 업종 시·군·구별 증감분포  
 주: 2018년12월 대비 2017년 12월 집계된 사업자의 증감을 도식화한 것임.

있던 세부업종을 중심으로 전국 시군구별 증감을 도식화하였다(그림 4).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등록이 두드러지는지 반대로 폐업이 창업보다 두드러지는지 파악한 결과, 신규 창업이 두드러진 커피전문점과 통신판매업은 전국 전지역을 중심으로 신규창업이 폐업보다 많은 증가형의 패턴을 띄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반면, 서비스 중병·의원, 전문직, 교육 분야는 2017년 대비 2018년 신규창업이 폐업 등록을 앞서며 전체적으로 증가형으로 나타났지만 지리적 분포는 상이한 양상이 관측되었다. 특히 치과병원·의원과 건축사는 광역시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관측되었고, 교습소·공부방과 부동산 중개업은 대도시를 비롯해 인접한 시군 등의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신규창업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식료품가게와 구내식당 등은 광역대도시에서도 창업보다 폐업이 두드러진 것으로 관측되었고, 펜션과 게스트하우스는 경상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지만 여관과 모텔은 일부 해안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폐업 등록이 더 많았던 것으로 산출되었다.

#### 4. 업종별 창업과 폐업 분포와 지리적 변수의 관계 분석

지역 경제 성장과 밀접한 일자리 창출과 소멸에서 창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Kane, 2010). 전국 시·군·구별 창업과 폐업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지역 간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즉 개인과 법인 형태의 창업 분포 및 폐업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도출하고자 공간회귀모형을 구축하였다.

2017년 기준 신규 창업하여 진입한 업체와 폐업 등록하여 이탈한 업체를 개인과 법인 형태로 나

눈 모델이 각각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였고, 이들의 창업과 폐업을 설명하는 변인은 인구 및 가구 요인(거주인구, 순이동인구, 1인가구, 청년층인구(2030세대) 장년층인구(4050세대), 고령층인구(60세 이상), 주간인구지수, 외국인 수, 고등교육인구(석사 이상)), 의료복지 및 사회문화적 환경(의료기관 의사 수, 보육시설 수, 문화기반시설 수), 교육환경(대학 학생 수), 소득 및 재정(자동차등록대수, 지가변동률, 재정자립도, 건강보험적용인구), 산업-경제적 요인(사업체수, 종사자수)으로 구분한 후, 각 요인별 절대 및 상대 지표로 재구성하여 창업 분포를 설명하는 회귀모델과 폐업 분포를 설명하는 회귀모델에 각각 동일한 변수를 투입하였다(표 5). 종속변수로 투입된 신규창업과 폐업 등록자수의 분포는 모두 모란지수(Moran's I) 산출 결과 공간자기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수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개인의 창업과 폐업을 설명하는 선형회귀모델을 추정한 결과, Jarque-Bera 검정을 통해 오차항의 비정규성을 확인하였고, 오차항의 이분산성을 검정하는 Breush-Pagan, Koenker-Bassett 값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창업과 폐업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지역 간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공간 종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LM lag, LM error 값의 유의도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공간오차모델이 통계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의 창업과 폐업의 분포를 설명하는 공간회귀모델도 함께 구축하였다. 결정계수 값은 일반선형모델에서 공간시차모델, 공간오차모델의 순으로 갈수록 조금 커졌고, 모델의 적합도를 설명하는 AIC, SC, Log likelihood 값도 셋 중 공간오차모델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법인의 창업과 폐업을 설명하는 선형회귀모델을 추정한 결과, Jarque-Bera 검정으로 오차항의 비정규성과 Breush-Pagan, Koenker-Bassett 검정으로 오차항의 이분산성을 확인한 결

표 5. 투입 변수 설명

		변수 설명	자료	
종속변수 1		시군구 단위별 창업(신규) 등록 분포(개인, 법인)	국세청(2017)	
종속변수 2		시군구 단위별 폐업 등록 분포(개인, 법인)		
설명 변수	인구 및 가구	거주인구(명)	인구통계 (2017)	
		순이동인구(=전입-전출, %)		
		1인가구(%)		
		각 연령층별 인구(%): 청년층(20~39세), 장년층(40~59세), 고령층(60세 이상)		
		주간인구지수(=주간인구/상주인구, %)		
		고등교육인구(석사이상, 명)		
		인구천명당 외국인 수(명)		
	의료복지 및 사회문화적 환경	인구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명)	지방지표 통계(2017)	
		인구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개)		
		유아천명당 보육시설 수(개)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 시설 수(개)		
	교육 환경	대학 학생 수(명)		
		교원1인당 학생수(명)		
	소득 및 재정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개)		
		지가변동률(%)		
		재정자립도(%)		
		건강보험적용인구(명)		
	산업 및 경제	인구천명당 사업체수(개)	사업체조사 (2017)	
		인구천명당 종사자수(명)		

주: 주간인구지수와 고등교육인구는 2015년 수치임.

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간 종속성을 진단하기 위한 LM lag, LM error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법인의 창업과 폐업의 분포를 설명하는 회귀 모델은 일반선형회귀모델로 구축하여 추정하였다. 결정계수 값을 통해 본 모델의 설명력은 77.7~79%로 산출되었다.

이와 같은 단계를 통해 먼저 일반선형회귀모델의 결과를 중심으로 법인의 신규 창업과 폐업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를 보면(표 6), 법인의 창업과 폐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

는 모두 동일하게 산출되었다. 외국인(+)과 석사학위 이상의 고등교육인구(+)의 분포,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수(-)와 사업체(-) 및 종사자(+)의 분포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창업에 있어 법인의 입지 분포에서 석사이상의 고급인력이 풍부한 지역은 선호하지만, 역시 고급인력이 풍부한 대학이 소재하는 지역의 학생의 분포에는 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인구천명당 사업체 수에는 음의 관계를 나타냈지만 종사자 수에는 양의 관계를 나타내 신규 창업하는 법인이 입지하는 지역의 경제-산업 활동은 대

표 6. 법인 창업·폐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선형회귀모형 추정 결과)

indep.	dep.	법인 창업	법인 폐업
		OLS	OLS
상수항		-797.719 (-1,394)	-446,008 (-1,387)
인구천명당 외국인수		5.435** (2,571)	3.827*** (3,221)
고등교육인구(석사이상)		0.039*** (8,136)	0,021*** (7,948)
대학교 학생수		-0.008*** (-2,893)	-0.004*** (-2,952)
인구천명당 사업체수		-9.152*** (-3,845)	-5.441*** (-4,068)
인구천명당 종사자수		1,831*** (3,400)	1,101*** (3,640)
Jarque-Bera test		13545.95***	9695.293***
Breusch-Pagan test		2181.344***	1893.645***
Koenke-Bassett test		112,143***	114,298***
$R^2$		0,777	0,790
Log-likelihood		-1688,58	-1556,61
AIC		3421,17	3157,22
SC		3496,71	3232,76
LM-Lag		0,713	1,229
Robust LM-Lag		0,251	0,721
LM-Error		0,536	0,514
Robust LM-Error		0,074	0,007
SARMA test		0,787	1,236

주: 1) p-value: \*\*\* < 0.01, \*\* < 0.05, \* < 0.1

2) 괄호는 t값임.

기업이 분포하는 등 업체의 규모(종사자)가 큰 지역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간오차모델의 결과를 중심으로 개인의 신규 창업과 폐업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를 보면(표 7), 법인과 달리 개인의 신규창업 입지 분포를 결정하는 요인과 폐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소 다름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창업 분포는 주간인구(+)와 순이동인구(+)의 분포, 자가변동률(+), 문화기반시설(+), 지역의 재정

자립도(+), 대학교 학생 수(-)의 분포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개인의 폐업을 결정하는 요인은 주간인구(+)와 지역의 재정자립도(+), 대학교 학생 수(-), 2030세대의 청년층(+), 인구 분포 및 업체의 종사자(+) 분포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개인의 창업과 폐업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주간인구지수와 재정자립도는 양의 관계로 나타나 야간인구보다 주간인구가 많이 분포하는 지역의 입지를 선호하지만 업

표 7. 개인 창업·폐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공간회귀모형 추정 결과)

indep.	dep.	개인 창업			개인 폐업		
		OLS	SLM	SEM	OLS	SLM	SEM
상수항		-4802.41*** (-2.732)	-4844.32*** (0.436)	-4971.55*** (-3.353)	-3577.79*** (-3.356)	-3490.32*** (-3.447)	-3768.61*** (-4.765)
주간인구지수		18.719 (1.610)	18.293* (1.649)	15.485 (1.563)	10.848 (1.539)	11.602* (1.729)	6.821 (1.289)
순이동인구		0.131*** (6.611)	0.131*** (6.912)	0.128*** (7.615)		-	
지가변동률		112.332 (1.530)	113.467 (1.625)	113.038* (1.909)		-	
인구십만명당문화시설수		14.427 (1.164)	14.359 (1.219)	20.674** (1.978)		-	
재정자립도		35.118*** (2.819)	34.781*** (2.931)	34.066*** (3.239)	15.856** (2.099)	16.434** (2.292)	17.390*** (3.102)
대학교 학생수		-0.017** (-2.100)	-0.017** (-2.172)	-0.022*** (-3.212)	-0.009* (-1.909)	-0.010** (-2.116)	-0.014*** (-3.725)
20~30대 인구			-		0.035*** (3.064)	0.039*** (3.441)	0.023*** (2.794)
40~50대 인구			-		0.043** (2.206)	0.047** (2.481)	0.015 (1.054)
60세이상 인구			-		0.128 (1.366)	0.015* (1.673)	-0.001 (-0.105)
1인가구			-		25.749 (1.452)	23.246 (1.370)	42.838*** (3.266)
인구천명당종사자수			-		1.125 (1.122)	1.020 (1.069)	1.361* (1.756)
Moran's I		0.175 (0.000)			0.178 (0.000)		
<i>P</i> , $\lambda$		-	0.012***	-0.471***	-	-0.031***	-0.661***
Jarque-Bera test		2276.032***	-	-	2178.005***	-	-
Breusch-Pagan test		263.432***	263.226***	235.038***	246.148***	242.430***	211.711***
Koenke-Bassett test		30.947*	-	-	28.870	-	-
Likelihood ratio test		-	0.195	30.509***	-	1.660	68.776***
<i>R</i> <sup>2</sup>		0.947	0.947	0.956	0.962	0.962	0.975
Log-likelihood		-1945.58	-1945.48	-1930.327	-1831.07	-1831.07	-1796.678
AIC		3935.16	3936.97	3904.65	3706.13	3706.13	3637.36
SC		4010.7	4015.94	3980.2	3781.67	3781.67	3712.90
LM-Lag		0.2008	-	-	1.676	-	-
Robust LM-Lag		5.165**	-	-	0.697	-	-
LM-Error		32.612***	-	-	67.539***	-	-
Robust LM-Error		37.576***	-	-	66.561***	-	-
SARMA test		37.777***	-	-	68.236***	-	-

주: 1) p-value: \*\*\* < 0.01, \*\* < 0.05, \* < 0.1  
 2) 괄호는 t값임.

체 간 경쟁 등 폐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고, 창·폐업과 관계가 있는 지역은 모두 재정자립도가 양호한 지역임도 알 수 있다. 반면에 법인과 마찬가지로 대학이 소재하는 지역은 개인의 창업과 폐업 분포에 음의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그 밖에 개인 창업에 있어 전출보다 전입이 많은 곳과 입지하는 지역의 지가의 변동성도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 역시 개인이 창업하는데 양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폐업하는 개인 업체는 2030세대의 청년층 인구 분포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산출되었고, 40대 이상의 인구도 공간오차모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양의 방향성을 나타냈고, 공간시차모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산업 활동을 하는 종사자가 많고, 1인가구가 많은 지역이 개인 폐업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개인과 법인의 창업 및 폐업에서 나타나는 지리적 분포 특성과 실제 창업 비중이 높은 생활서비스 및 생활소비와 관련있는 생활밀접업종을 대상으로 세부 업종별 창업과 폐업의 증감에 따른 지리적 분포 양상을 살펴보고 이들 분포에 작용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 22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개인과 법인 형태의 신규창업과 폐업의 공간 분포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비교하였고, 이 중 100대 생활밀접업종을 중심으로 창업과 폐업이 두드러지는 세부 업종을 추출하여 이들의 지리적 증감의 분포 패턴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개인과 법인 형태의 창업 입지와 폐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는 일반선형회귀모델과 공간회귀모델의 구축을 통해 유

의미한 사회경제적 변수를 도출하였다.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창업활동은 꾸준히 증가하여 신규창업으로 등록 후 가동 중에 있는 사업자는 무려 7백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 창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90%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인과 법인 형태의 창업 입지 분포에서 나타나는 지리적 분포 특징을 파악하고, 이 가운데 생활밀접업종을 대상으로 업태별, 주요 업종별 창·폐업의 증감 변화를 살펴본 결과, 지난 10년(2007~2017년) 동안 창업의 전체 수(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이들의 지역적 분포는 다소 상이한 양상을 나타냈다. 법인의 경우 신규창업이 대부분 서울 지역으로 편중되어 입지한 반면, 개인 창업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을 비롯해 지방에서도 비교적 활발한 양상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 규모가 크고 소득이 높은 대도시는 자영업을 비롯해 법인 형태의 신규창업의 진출입이 활발하기 때문에 폐업을 또한 높게 나타냈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폐업률도 낮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생활밀접업종의 경우 서비스업 중 병·의원, 전문직, 교육 분야의 세부 업종은 모두 창업 증가형의 패턴을 띠는 반면, 소매업과 숙박업, 음식업은 세부 업종별로 증가형과 감소형의 각기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창업 업종 중 증가형의 패턴이 두드러진 세부 업종은 서비스업(치과병의원, 건축사, 변호사, 세무사, 교습소·공부방,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예술학원, 부동산중개업, 실내장식가게, 피부관리업) 소매업(통신판매업, 편의점), 숙박업(펜션·게스트하우스), 음식업(커피음료점, 패스트푸드점, 한식전문점) 등을 들 수 있고, 감소형의 패턴이 두드러진 세부 업종은 기타 서비스업(노래방, 이발소), 소매업(식료품가게, 옷가게), 숙박업(여관·모텔), 음식업(구내식당, 호프전문점) 등을 들 수 있다. 개인 중심 사회의 영향으로 개인의 다양한 개성, 선호와 관련되는 업종과 저성장 및 고령사회에 따른 평생

교육 관련 업종, 웰니스 등 여가관광의 증가에 따른 관련 업종 등을 중심으로 창업활동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옷가게, 식료품가게 등 판매 관련 소매업종은 신규창업보다 폐업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이는 온라인 판매시장의 확산과 성장세 등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개인과 법인의 창업 입지와 폐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를 도출하고자 일반선형회귀모델과 공간회귀모델을 구축하여 추정한 결과, 법인의 경우 창업과 폐업 모두 외국인과 석사학위 이상의 고등교육인구가 풍부한 고급인력이 분포한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낸 반면에 대학교 학생의 분포에는 음의 영향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산업 활동의 규모(종사자)가 큰 지역일수록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법인과 달리 개인의 창업 입지는 야간인구보다 주간인구가 많으면서 전출보다 전입이 많은 지역, 그리고 입지하는 지역의 지가 변동에도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또한 문화기반시설과 재정자립도가 양호한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폐업을 결정하는 요인도 지역의 양호한 재정자립도와 주간인구 및 2030세대의 청년층과 경제-산업활동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이 분포하는 지역일수록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법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에서도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교 학생의 분포는 창·폐업 모두 음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대학과 정부, 지자체의 창업활동 장려 정책으로 대학의 창업관련 교과과정이 개설되고 창업관련 동아리 수 및 활동이 증가하였으며,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한 캠퍼스타운 조성 계획 등 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해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여러 지원이 이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는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교(학생)의 분포가 지역창업의 입지를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엿볼 수 없었다. 이는 특히 창업의 절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개인이고, 개인 창업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태가 생활서비스 및 생활소비와 연관되는 생활밀접업종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 및 대학에서는 주로 지식기술 창업을 중심으로 재정 및 정책적 지원이 집중되고 있어 실제 창업 현실과는 다소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식기술 창업 자체를 지원하기 이전에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기술 관련 연계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 직업교육, 직업훈련이 선행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고, 실제 창업과 연관이 높은 생활서비스 및 생활소비와 연관되는 창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창업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다양한 조사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단위의 집계자료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 실증분석을 전개하는데 한계가 존재하였다. 지역 경제 성장에 있어 지역창업의 활성화와 지역폐업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양상의 패턴 등 지역간 창업 환경 차이 및 지역내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지역단위별 관련 집계자료 구축이 시급해 보인다.

## 주

- 1) 우리나라의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8%(OECD 11.7%)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대통령직속 일자리 위원회, 2019). 또한 65세 이상 연간 실업률은 2003년 0.4%였던 것이 2018년 2.9%까지 올랐다.
- 2) 창업 및 폐업에 대한 통계자료는 통계청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데 자영업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수치나 추세에 차이가 다소 존재한다. 국세청 자료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만 포함하는 반면, 통계청 조사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통계청 조사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농림어업 종사자도 포함되고, 국세청 자료에는 사업자 등록을 중복으로 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등은 중복산정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들로 인해 국제청의 개인사업자수는 매년 증가하나 자영업자수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 3) 기업생멸행정통계는 사업자등록 및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에 따라 조사통계 결과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김우영·박동규, 2012, “자영업 비중에 대한 시계열 분석: 실업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중소기업학회, 중소기업연구 34(3), pp.21-41.

김원규·김진웅, 2014, “창업이 고용창출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1(2), pp.211-227.

남윤미, 2017,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 BOK 경제연구 제2017-5.

류근관·김명원·정재원, 2015, “정부 행정 통계를 이용한 자영업 창업 및 생존률 분석,”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 빅데이터연구원 분석 보고서 제1권.

박소현·이금숙, 2016, “서울대도시권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지적 특성과 관련 업종별 고용기회 예측,”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9(4), pp.694-711.

박소현·이금숙, 2017, “수도권 1기 신도시 지역산업의 성장과 고용효과의 변화 분석: 고양시와 성남시를 대상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0(1), pp.34-48.

박소현·이금숙, 2018, “저출산-고령사회 지역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인구연령층별 관련 의료시설 분포 예측,” 대한지리학회지 53(3), pp.371-385.

안은경·이희연, 2015, “지역노동시장권별 창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 격차 및 일자리 질 비교,”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8(2), pp.168-189.

안주엽·성지미, 2003, “자영업 지속기간의 결정요인,” 노동경제논집 26(2), pp.1-30.

이금숙, 1998, “의료서비스시설 입지문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 pp.71-84.

이윤숙·문성욱, 2016, “창업의 수, 생존율 및 고용 성장에 관한 고찰,” Korea Business Review 20(2), pp.121-141.

이정현·이희연, 2017, “지식기반산업 창업기업의 고용창

출 효과,”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0(2), pp.137-157.

전현배·조장희·강지수, 2016, “진입퇴출과 생산성 성장: 창업 억제 대상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2016 마이크로데이터 기반 한국경제 연구 컨퍼런스 논문집.

정혜진, 2016, “창업활동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16개 광역시·도를 중심으로(2007~2014),” GRI연구논총 18(1), pp.35-62.

최중석·성상현, 2015, “예비 창업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창업성향 발달도 및 창업업종 선정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0(5), pp.1-13.

국세청, 2018, 사업자현황 [https://stats.nts.go.kr/time/time.asp#\(국세청\)](https://stats.nts.go.kr/time/time.asp#(국세청)), 국세청 사업자현황 연령별: 산업분류는 대분류(농·임·어업 등) 지역단위 시군구, 30세이상, 40세 이상(개인, 법인).

국세청, 사업자 현황(신규사업, 폐업, 100대 생활밀접업종), 14개업태(대분류) 성별, 연령별, 존속연수별 시군구 통계.

대통령직속 일자리 위원회, 일자리 상황판 일자리 상세지표 2019, [https://dashboard.jobs.go.kr/index/detail?pg\\_id=PDCT010302&data2=DCT010302&ct\\_type=run](https://dashboard.jobs.go.kr/index/detail?pg_id=PDCT010302&data2=DCT010302&ct_type=run)

중소벤처기업부, 2018, 2018 창업지원사업.

통계청, 2018, 2017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

Baptista, R. and Preto, M., 2011, “New firm formation and employment growth: regional and business dynamics,” *Small Business Economics* 36(4), pp.419-442.

Deli, F., 2011, “Opportunity and necessity entrepreneurship: local unemployment and the small firm effect,” *Journal of Management Policy and Practice* 12(4), pp.38-57.

Frey, C. B. and Osborne, M. A., 2017,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zation?,”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14(C), pp.254-280.

Fritsch, M., 1997, “New firms and regional employment change,” *Small Business Economics* 9(5), pp.437-448.

Fritsch, M. and Mueller, P., 2004, “Effects of new business

- formation on regional development over time,” *Regional Studies* 38(8), pp.961-975.
- Kane, T., 2010, “The importance of startups in job creation and job destruction,” in *Kauffman Foundation research series: Firm Formation and Economic Growth*, pp.1-8.
- Mueller, P., van Stel, A. and Storey, D., 2008, “The effects of new firm formation on regional development over time: the case of Great Britain,” *Small Business Economics* 30, pp.59-71.
- van Stel, A. and Storey, D., 2004, “The link between firm births and job creation: is there Upas tree effect?” *Regional Studies* 38(8), pp.893-909.
- van Stel, A. and Suddle, K., 2008, “The impact of new firm formation on regional development in the Netherlands,” *Small Business Economics* 30(1), pp.31-47.
- 교신: 이금숙, 02844,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4다길 2,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전화: 02-920-7138, 이메일: kslee@sungshin.ac.kr
- Correspondence: Keumsook Lee, Department of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ersity, 2 Bomun-ro 34dagil, Seongbuk-gu, Seoul 02844, Korea, Tel: 82-2-920-7138, E-mail: kslee@sungshin.ac.kr
- 최초투고일 2019년 5월 31일  
수 정 일 2019년 6월 20일  
최종접수일 2019년 6월 25일